

제10장 두 번째 선교사로 귀국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강명석 전도자의 침례 받은 정확한 시기는 1935년 6월 15일(토)이다. 그런데 동석기 선교사는 “1935년 6월 어느 주일 오전 예배[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에 강명석 형제가 참석하고 있어서 그를 만났다. 그리고 강명석은 그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침례를 받았다.”라고 회고하였다. 그렇지만 확인 결과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들이 “*Gospel Advocate*”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김으로 동석기의 기억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다른 여러 곳의 기록에서도 연·월·일·요일 등에 오류가 다수 발견되므로 역사정리에 혼선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1935년 6월 15일(토)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전향[轉向, 방향전환, 환원]하고 침례를 받은 우리의 조선인 형제인 강문석(강명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 [*Gospel Advocate*, June 25, 1936, 621.]

또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강명석 선교사의 학

위수여식 시기에 대한 견해도 엇갈리고 있어서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김세복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1969, 50.)는 “1935년 6월 3일(월)” 동 대학(밴더빌트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얻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강명석의 외아들 강경태 박사는 “1935년 6월 13일(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동석기 선교사는 “강명석 형제는 침례 받은 직후에 밴더빌트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므로 1935년 6월 17일(월)경으로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애빌린기독교대학교[Abilene Christian University, ACU] 교수인 강삼정 박사[Dr. Samjung Kang-Hamilton]를 통해서 밴더빌트대학교에 확인한 결과 “1935년 6월 12일(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밴더빌트대학교)에 연락한 결과 Chris라는 분이 신학부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친절하게 며칠을 대학 여러 곳에 연락한 결과 ‘Myungsuck Kang’으로 실천신학사(B. D.) 학위를 1935년 6월에 받았는데 졸업식은 같은 해 6월 12일이라고 대학 교과과정 카탈로그(catalogue)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9.02.02. 메일]

『신한민보』라는 신문은 1935년 6월 27일(목)에 강명

석 선교사의 졸업에 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실었지만 정확한 졸업 시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인 대학졸업생: 우리 학생 중 이번 여름방학에 졸업과 학위를 받은 이는…。 강명석 씨는 밴더빌트대학교에서 목회학사 학위를…。 받았다.”



프리드 하드먼대학 캠퍼스

강명석 전도자는 밴더빌트대학교 졸업 후 귀국을 미루고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육기관에서 연장 교육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선배인 동석기 선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동석기는 테네시주(Tennessee) 헨더슨((Henderson)에 있는 프리드-하드먼대학(Freed-Hardman College)을 추천하였다. 동석기의 추천을 받은 강명석은 즉시 프리드-하

드먼대학의 정규과정 편입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어 그는 가을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제공해 준 숙소에서 지내면서 편입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웨이버리-벨몬트교회 장로들의 배려로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말씀 강론을 여러 번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때 강명석 전도자를 지켜본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들은 매우 흐뭇해하면서 그에게 “강형제! 프리드-하드먼대학에 다닐 학비 및 생활비 일체를 우리가 후원하도록 하겠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약속을 해주었다. 그래서 강명석은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서 1935년 9월 16일(월) 웨이버리-벨몬트교회를 떠나 프리드-하드먼대학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프리드-하드먼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환원 운동에 관한 연구와 조선에서 펼쳐갈 선교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Gospel Advocate, June 25, 1936, 621.]

그런데 강명석 전도자가 프리드-하드먼대학 정규과정에 편입하여 공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해당 과정을 모두 마치지 못하였기에 즉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기에 학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과목 즉 듣고 싶은 과목의 강의를 취사선택해서 수강했으며,

선택한 과목의 학점은 모두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왜냐하면, 강삼정 박사가 프리드-하드먼대학 당국에 연락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는 메일을 받았다고 필자에게 보내왔기 때문이다.



프리드 하드먼대학 학생들과 함께

“나는 강문석의 기록을 발견했다. 이 학생은 학위를 마치지 않았지만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에 해당이 되는 수업 시간에는 출석하여 강의를 들었다.” [Hailey Malone의 메일(2019.1.31.)]

강명석 목사는 1932년 8월 샌프란시스코 천사 섬 이민국에서 미국 상륙허가를 받고 유학 생활을 시작한 때는 조선감리교회소속 장로 목사(정회원) 신분이었다. 그러나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실천신학사 학위를 받고,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므로 환원한 후 프리드-하드먼대학에서 1년간 공부를 마치고, 1936년 11월 5일(목) 샌프란시스코에서 귀국길에 오를 때는 신분이 변해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 (Church of Christ) 전도자(preacher)요, 미국 테네시주 (Tennessee) 내슈빌(Nashville) 12번가 그리스도의 교회(Twelfth Avenue Church of Christ)에서 파송 받은 조선인 선교사(native missionary) 즉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조선 선교를 위해 파송한 두 번째 선교사 신분이었다. [Gospel Advocate, July 17, 1941, 692.] 이 일에 대하여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 받은 동석기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2번가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강명석 형제는 밴더빌트 대학교를 졸업한 후, 테네

시주 내슈빌에 있는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였다. 웨이버리-벨몬트교회 교인이 된 후에 그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1936년에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12번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로 조선에 돌아왔다.” [동석기, 조선, 북청, 1941.6.6.]

강명석 전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할 당시 ‘강명석 선교사 선교후원 대표교회’는 12번가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또한, 환원 후 그의 첫 출석교회인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도 ‘강명석 선교사 선교후원 교회’로 참여했다. 그리고 ‘강명석 선교사 선교후원’을 위한 회계(재무) 책임자로는 12번가 교회의 셀비(W. T. Selby) 형제가 봉사하였다. [Gospel Advocate, June 25, 1936, 788.] 여기서 ‘강명석 선교사 선교후원 대표교회’였던 12번가 교회는 1904년에 설립된 교회로 그를 파송할 당시에 600여 명의 등록 교인이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였다. 그런데 1950년대 중후반부터 갑작스럽게 등록 교인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년 정도가 지나고 1975년이 되었을 때는 아이러니(irony)하게도 교회의 이름과 같이 12명의 교인만 남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집회를 중단하고 문을 닫았다. [<https://mcgarveyice.wordpress.com/2013/02/03/twelfth-ave>

[nue-church-of-christ-nashville-tn/](#)

강명석 선교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비 후원으로 조선에서 환원 운동과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 즉 교회를 설립한 후 전도자를 양성하여 사역을 맡기는 운동을 하기 위해 일본을 경유(經由)한 귀국길에 올랐다. 일본에 도착한 강명석은 먼저 1935년 11월 22일(주일) 일본 도쿄부(東京府) 토요시마구(豊島區) 조시가야초(雜司谷町) 1-68에 있는 조시가야 그리스도의 교회(雜司ヶ谷基督の教會)에서 주일주의 만찬 예배를 드렸다. [현재 이 교회 예배당은 도쿄도 토요시마구 조시가야 1-25-1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다.] 이때 이명신 사모가 마중을 왔었기에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 후에 이명신은 맥칼럼(J. M. M. McCaleb) 선교사에게 구원의 침례를 받고 감리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教會ニュース』, 『道しるべ』, 1937.1, 21; 姜文錫, 『日本に居る兄弟姉妹に』, 『道しるべ』, 1937.5, 15~16; 박선희, 『한국교회 환원운동사 (2)』, 『참빛』, 1968.2, 20.]

강명석 선교사 부부는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둘러본 후 부산을 거쳐 12월 3일(목) 가족들이 있는 울산에 도착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조선 선교는 그가 귀국한 날에 시작되었는데, 그날은 남한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가 시작된 날로 평가된다. 이때 ‘강명석

목사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울산읍장로교회[蔚山邑長老教會, 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192번길 9(신정동) 울산제일교회, 예장 통합] 교인들과 부산교회를 출석할 때 친분이 형성된 심취명 목사였다. [김세복, 『교회사』, 50.] 당시 심취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목사직을 휴직하고 교회 사역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출석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강명석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한 것이다.

“강 목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무사히 귀국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재 울산읍교회는 1936년 1월에 제6대 담임 교역자인 김상순 당회장 목사가 사임하고 떠난 후부터 근 1년 동안 당회장 목사가 공석(空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강 목사는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청빙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목회할 교회도 결정되지 않았기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양하지 말고 다음 주일날 시간을 내서 울산읍교회에서 말씀 강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선배 목사인 심취명과 울산읍장로교회 교인들의 말씀 강론 부탁을 받은 강명석 선교사는 흔쾌(欣

快)히 허락하였다. 이어 1936년 12월 6일 조선에서의 첫 주일이 되자 친가와 처가 가족들이 그동안 출석하고 있었던 울산읍장로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다. [김세복, 『교회사』, 50.] 그리고 강명석은 환원 후 고국 조선에서의 첫 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론하였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서가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처럼 주일마다 성만찬(주의 만찬)을 기념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약식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고 구원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는 우리나라에는 ‘환원 운동’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경성 북쪽 지역에만 소개되었으나 경성 남쪽 지역에는 소개되지 않았기에 대부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만 있었던 때이다. 그런데 너무 생소한 말씀 강론을 듣게 된 교인들이기에 의아해하면서 웅성거림이 있게 되자 심취명 목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말씀 강론 중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끝나기만 기다릴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는 강명석 선교사가 말씀 강론을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 광고 시간이 되자 심취명이 단호(斷乎)하게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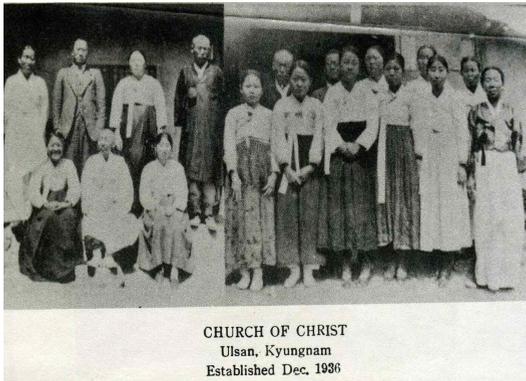
“울산읍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강명석 목사가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리를 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회에 아무리 말씀 강론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강 목사를 절대로 강단에 세우지 말 것이며 말씀 강론을 부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강명석 선교사와 심취명 목사는 유학 전부터 교제해오던 동역자였다. 그런데 심취명이 공개적으로 강명석과의 절교(絶交)를 선언해 버린 것이다. [김세복, 『교회사』, 50.] 강명석은 귀국하여 처음으로 장로교회 강단에서 신약교회를 외치다 선배 목사에게 절교를 당하게 되므로 그와 교제를 중단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파송 받은 두 번째 선교사 강명석이 당시 울산읍장로교회에서 선포한 말씀 강론은 ‘귀국 후 조선 땅 남쪽 지역에서의 첫 번째 환원 운동의 호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강명석 선교사는 심취명 목사로부터 공개석상에서 절교 선언의 수모를 겪게 되자 많은 생각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처가로 돌아왔다. 기다리고 있는 친가와 처가 가족들에게 울산읍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일과 앞으로 활동할 선교사역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얘기하였

다. 그리고 이명신 사모(師母) 에게는 성찬식(주의 만찬) 때 사용할 떡과 잔을 준비하도록 부탁하면서 울산읍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한다는 뜻도 밝혔다.

“오늘 저녁 예배부터 우리 가족이 모두 교인이 되고 이곳을 예배 장소로 삼아 예배를 드리므로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 주일 주의 만찬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주일이므로 최초 주일 주의 만찬 예배로 드릴 것이며, 앞으로 매 주일 주의 만찬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은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문 앞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울산예배당이라는 간판을 부착할 것입니다.”



울산교회 예배당 앞에서 초기 교인들(20명)

강명석 선교사의 포부(抱負)를 들은 그의 장모 전란은 그동안 울산읍장로교회를 출석했었는데 흔쾌히 사위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강명석은 1936년 12월 6일 저녁에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군(蔚山郡) 울산읍(蔚山邑) 교동(校洞) 306번지 처가를 예배 장소로 조선에서의 최초 주일 주의 만찬 예배를 인도하였다. [현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교동) 93] 이때 홀로 계신 어머니와 처가 식구들, 그리고 이명신 사모와 자녀들이 주의 만찬상(主一晚餐床)을 중심으로 빙 둘러 모여 앉아서 감격스러운 주의 만찬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므로 경성 남쪽 지역(현 남한지역) 최초교회요 장자교회(長子教會)인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蔚山基督의教會, Ulsan Church of Christ]가 설립되었다. [김세복, 『교회사』, 50.] 그런데 울산교회는 조선총독부에서 1937년부터 각 종교단체에 포교관리자 설치 계(종교단체 대표 등록), 포교 계(목회자 등록), 포교소 설치 계(교회설립 등록), 포교담임자 선정 계(담임 목회자 등록) 등을 제출토록 하였는데, 1938년 3월 20일(주)에야 두동교회와 함께 포교소 설치 계 서류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서류는 1939년 1월 18일(수) 조선총독부관보에 게재되었다. [국가기록원(1939), 『조선총독부관보』, 3597호.]